

韓國의 都市化類型과 都市人口成長의 構成要素

金 善 雄

- ▷ 目 次 ◁
- I. 序 論
 - II. 最近의 人口變動과 成長趨勢
 - III. 都市化推移와 速度
 - IV. 韓國都市化形態와 都市人口成長 構成要素
 - V. 要約 및 結論

I. 序 論

이미 약 2世紀前(1798年)에 「맬더스」(Thomas R. Malthus)는 당시의 西歐社會에서 급속한 人口增加로 인한 食糧 및 人口問題에 대하여 警告한 적이 있다. 이제 人口問題는 20世紀 後半期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開發途上國家들이 當面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問題중의 하나가 되었다. 각 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가지 經濟·社會的 與件에 따라 다르겠지만, 人口問題의 共通的인 爭點은 우선 다음과 같은 두가지 側面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前例없이 급격한 人口增加에 따른 問題와 둘째, 이같이 급증한 人口의 地域分布面에서 小數의 大都市에 人口集中으로 慢性的 人口過密과 地域的 不均衡發展을 초래한 급속한 都市化過程의 問題이다.

本稿의 主題는 人口問題 가운데 後者の 都市化에 관한 問題이다. 20世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歷史的으로 政治·社會與件의 변화와 더불어 급속한 人口變動을 겪어 왔다. 이같은 人口變動은 단순한 人口力學的 要因에 의한 變動이기보다는 政治·經濟·社會의 人口外的 要因의 작용에 의하여 변화하여 온 것이다. 本稿에서는 韓國의 最近 都市化의 形態와 急速한 都市人口成長의 構成要素에 대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最近 都市化의 推移와 類型의 考察에 들어가기에 앞서 概觀적으로 우리나라 최근 人口變動에 대한 概觀부터 해 보기로 하겠다.

II. 最近의 人口變動과 成長趨勢

1978年 常主人口調査에 의하면 우리나라 總人口는 10月1日 현재로 總 726萬 家口, 3,663萬名으로 集計되었다. 이같은 人口規模는 스페인이나 이란의 人口 크기와 거의 같은 정도로 최근 人口推定이 가능한 全世界 200餘 國家 가운데서 人口의 크기로 21~23位의 順位로 人口가 많은 나라에 속한다¹⁾. 한편 우리나라의 國土面積은 약 98,806km²로 현재 세계의 獨立國 가운데 95번째의 順位로,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都市國家나 몇몇 小島嶼를 제외하면 1977年 현재로 우리나라 人口密度는 km²當 약 374名으로 全世界에서 방글라데쉬의 580名 다음으로 人口가 稠密한 곳이다. 또한 國際食糧機構(FAO)의 推定에 의하면 1977年 현재 可用耕地 km²當 약 1,580名으로 日本의 2,066名 다음으로 人口壓力을 받고 있다. 이같은 人口狀況에서 최근의 産業化와 더불어 加重하는 人口壓力은 오늘날 急激한 大都市人口集中과 急速한 都市化를 招來하게 된 결과이기도 하다.

實證의 人口統計資料의 歷史的 考察을 해보면, 우리나라 人口調査의 始初는 高麗王朝

(A.D. 918~1392)때 벌써 소위 戶口調査라는 名目 아래 주로 租稅徵收 目的으로 人口調査가 行해졌으며, 李朝初期(A.D. 1428)부터는 이같은 戶口調査는 每 3年마다 실시되었다. 하지만 現存하는 이같은 史料에 의한 우리나라 歷史上의 人口數는 다만 根據있는 추측에 불과하다. 그러나 歷史家들에 의하면 19世紀初(1807)의 우리나라 總人口는 약 760萬, 20世紀初(1904)의 人口는 약 1,300萬으로 推定하고 있다²⁾. 現代的 의미의 人口調査는 日帝下에 「簡易國勢調査」라는 名稱으로 1925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每 5年마다 지금까지 계속 시행되어 오고 있다.

<表 1>은 과거 11회의 센서스를 통한 우리나라 人口變動 및 增加趨勢를 보여 주고 있다. 1925年 韓半島에 居住하는 우리 韓國人數는 약 1,900萬이다. 人口變動力學的 側面에서 보면 出生과 死亡의 差에 의한 自然增加率은 1925~30년간 平均 1.9%, 1930年 이후는 계속 2% 수준을 약간 上廻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센서스 人口增加率은 1925年 이후 解放이 될 때까지 自然增加率보다 훨씬 낮은 年平均 약 1.5%씩 人口增加를 했다. 이같은 人口變動現象은 日帝植民統治期間 수많은 우리 同胞들이 故國을 떠나 주로 日本과 滿洲地域 等地로 大舉 海外流出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資料와 推定方法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解放當時의 在日同胞의 數는 약 183萬³⁾, 滿洲地域 居住同胞의 數만도 약 120萬⁴⁾으로 推算하고 있으며, 1939~44年間 순전히 日帝의 強制徵用으로 動員移出된 수는 약 70萬으로⁵⁾ 推定하고 있다.

解放直前の 南韓의 總人口는 약 1,620萬으로 推定⁶⁾되며 1949년에는 2,017萬으로 5年 동안

1) U.N., *Demographic Yearbook*, 1977;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78.

2) 李相伍, 「近世前期篇」, 『韓國史』, 1963, pp.26~28.

3) 朴在一, 『在日朝鮮人に關擔總台調査研究』, 1957, pp.22~31.

4) 金哲, 『韓國の人口と經濟』, 1965, p.31.

5) Tai Hwan Kwon, *Demography of Korea*, 1977, p.185.

6) Lee-Jay Cho, *Demographic Situ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973, p.2.

〈表 1〉 總人口增加趨勢 및 動態率變化, 1925~75

센서스 年 度	센서스人口 (1,000名)	年 平 均 增 加 率 (1,000名對比)				
		粗出生率	粗死亡率	嬰兒死亡率	自然增加率	人口增加率
全國(南北韓)						
1925(10.1)	19,020					
1930(10.1)	20,438	44.9 ¹⁾	26.2 ¹⁾	241.4 ⁴⁾	18.7	14.5
1935(10.1)	22,208	44.1 ¹⁾	23.9 ¹⁾	203.4 ⁴⁾	20.2	16.8
1940(10.1)	23,547	43.8 ¹⁾	23.2 ¹⁾	151.7 ⁴⁾	20.4	11.8
1944(5.1)	25,120	41.0 ¹⁾	19.5 ¹⁾	133.4 ⁴⁾	21.5	18.2
南 韓						
1944(5.1)	16,244 ²⁾					
1949(5.1)	20,167	39.2 ³⁾	20.2 ³⁾	138.3 ⁵⁾	23.2	44.2
1955(9.1)	21,502	40.0 ³⁾	33.0 ³⁾	104.6 ⁵⁾	7.0	10.2
1960(12.1)	24,954	43.0 ³⁾	14.6 ³⁾	64.3 ⁵⁾	28.7	28.8
1966(10.1)	29,160	37.0 ³⁾	10.5 ³⁾	57.6 ⁵⁾	26.5	27.1
1970(10.1)	31,435	32.1 ³⁾	9.4 ³⁾	53.8 ⁵⁾	25.7	19.0
1975(10.1)	34,679	27.6 ³⁾	8.6 ³⁾	38.7 ⁵⁾	19.0	19.8

註: 1) Tai Hwan Kwon(1977).

2) Lee-Jay Cho(1973).

3) 統計局 推定值.

4) Sawon Hong(1978).

5) 김남일, 『인구예측, 1975~85』 1976.

資料: 經濟企劃院 統計局, 『1978, 韓國統計年鑑』, 1979.

센서스人口增加率は 推定自然增加率인 1.9% 보다 2배가 높은 年平均 4.4%로 무려 400萬의 人口增加를 하게 되었다. 당시의 이같은 南韓人口의 폭발적인 人口增加는 解放과 더불어 海外同胞의 歸國과 以北으로부터의 越南民에 起因하며, 이들 南韓流入人口는 1945~49年 동안 약 180萬의 歸還同胞와 70餘萬의 越南民으로 推算하고 있다⁷⁾.

그러나 6.25動亂의 수많은 死傷者로 인하여 1944~55年間に 〈表 1〉에서 볼 수 있듯이 自然增加率は 年平均 1% 미만에 머물렀으나 戰爭期間동안 상당수의 南下避難民으로 南韓의 人口增加率は 여전히 自然增加率보다 높은 수준에서 人口增加를 지속하였다. 당시의 韓國戰 동안 死亡, 拉北, 失蹤으로 인한 人命損

失數는 약 96萬인 반면에 南下避難民의 數는 약 45萬으로 推定하고 있다⁸⁾.

우리나라 政治·社會史의 觀點에서 볼 때 20世紀 前半期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日帝 植民統治를 겪고, 解放과 동시에 外勢에 의한 國土의 半永久的 南北分斷과 이어서 韓國動亂을 겪어온 불행한 政治·社會의 激動期로 特徵지어지고 있다. 또한 이같은 歷史的 變遷은 당시의 우리나라 人口變動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고, 이는 주로 우리 同胞의 國際移動을 통하여 總人口規模뿐 아니라 年齡構成, 性比 등의 全般의 人口構造와 國內 人口의 地域分布에 이르기까지 人口力學的 要因 밖의 外的 與件에 의하여 作用받고 變化해 왔다.

〈表 1〉에서 보듯이 休戰과 더불어 1955年 센서스부터는 人口力學的 側面에서 볼 때, 人口增加는 거의 自然增加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7) Tai Hwan Kwon, 前掲書, 1977, p.177.

8) Tai Hwan Kwon, 前掲書, 1977, pp.202~204.

비록 以前과 같이 人口外的 要因이 直接的으로 作用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여러가지 經濟·社會的 要因이 간접적으로 人口變動要因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1955~60年間에는 自然增加率이 年平均 거의 3%의 높은 수준으로 계속되었다. 이는 당시에 歐美의 發達된 現代醫藥品の 大量普及이 시작되어 특히 幼兒 死亡率의 大幅 低下로 粗死亡率이 急速히 낮아졌을 뿐 아니라, 동시에 時期的으로 소위 戰後多出生風潮(postwar babyboom)에 의한 전보다 높은 出生率로 당시의 人口爆增을 하게 된 것이다. 이같이 높던 自然增加率도 1960年代에 들면서부터 家族計劃普及을 통한 政府의 出生調節政策과 더불어, 그간 義務教育制와 一般教育機會擴大로 國民들의 教育水準向上, 急速한 經濟成長으로 生活水準의 向上 등 社會·經濟的 與件의 變化로 1975年 센서스때까지 15年間 出生率이 1960年初에 비해서 거의 折半水準으로 떨어졌다. 지난 20餘年 동안 出生率의 低下로 人口增加率이 상당히 減少하게 되었다.

앞으로 人口增加의 抑制은 出生調節이 가장 중요하고 唯一의 人口政策變數이다. 死亡率 低下는 保健醫學的 발달로 어느 수준까지는 單期間內에 이룰 수 있으나, 出生率의 경우 人間의 出生行爲는 일종의 複合의 行爲로 個人的 態度뿐 아니라 社會의 傳統的 規範 및 價値觀 그리고 經濟·社會構造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出生率이 더 이상 減少되어 과거에 저하된 만큼 감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미래 人口豫測에 있어서 이 出生率에 대한 假定如何에 따라 2000年

初 南韓만의 豫想人口는 5,000萬~5,500萬으로 豫측되고 있다. 制限된 좁은 國土내에 이 상과 같은 人口증가는 耕作地單位面積當 人口 壓力을 더욱 加重시킴으로써 계속적인 離農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産業化의 促進으로 急速한 都市人口集中과 都市化가 持續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Ⅲ. 都市化推移와 速度

1. 都市의 定義와 都市化 現況

都市化에 관한 資料를 수집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都市」의 規定 및 「都市化」의 定義에 대한 問題가 항상 提起된다. 이는 우리나라에 서뿐 아니라, 世界 여러나라에 따라 「都市」와 「都市化」의 定義가 一律的으로 適用되거나 採擇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都市의 概念에 있어서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최소한 다음과 같은 두가지 基準에 의하여 都市가 定義되고 있다. 첫째, 集居聚落의 人口 크기 혹은 나라에 따라 人口密度까지 考慮하는 人口의 量的 側面, 둘째, 農村과 對立概念의 側面에서 近代都市의 屬性으로서 住民의 産業別 就業構造의 特徵이 考慮되어야겠다. 이 小考에서는 都市化의 定義는 「엘드리지」(H. T. Eldridge)를 따라 “都市數의 增加와 各個別 都市自體의 人口增加로 인한 全體 都市住民의 總人口에 대한 比率”을 都市化率(urbanization rate or level)이라고 定義를 내리기로 한다⁹⁾. 이 定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法의 規定에 따라 우선 人口 5萬 이상이고 聚落構造 및 機能

9) Eldridge, Hope Tisdale, "The Process of Urbanization", *Social Forces*, 20(3), 1942, p.312.

〈表 2〉 都市化 水準의 國家比較, 1950~75

(단위 : %)

	1950	1960	1970	1975
全 世 界	28.95	33.89	37.51	39.34
先 進 國	52.54	58.73	64.68	67.49
開 發 途 上 國	16.71	21.85	25.82	28.03
아 프 리 카	14.5	18.2	22.9	25.7
라틴아메리카	41.2	49.6	57.4	61.2
아 세 아	16.2	21.2	24.2	26.0
美 國	63.91	69.96	74.00	76.32
英 國	83.22	85.60	88.08	89.20
프 랑 스	56.00	62.36	72.80	76.05
西 獨	70.84	77.59	81.34	83.42
日 本	50.28	62.54	71.35	75.21

資料 : U.N. (Population Division), "Patterns of Urban and Rural Growth," 1980, Table 2.5.

에 있어서 "그 대부분이 都市의 形態를 갖출¹⁰⁾ 地域으로 法節次에 따라 行政區域上 「市」로 昇格되어 都市로 看做되고 있다. 人口 統計資料의 便宜性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의 경우 이들 市部人口의 比率이 都市化率로 대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常住人口調查報告書』에 의하던 1978年 현재로 우리나라 總人口 3,660萬의 52%가 市部에 居住하고, 人口 5萬이상의 市·邑地域의 常住人口는 전체의 약 56%에 해당하는 것으로 計算이 된다. 〈表 2〉의 世界地域別, 國家別 都市化率 比較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都市化率은 全世界國家 平均보다는 높고, 라틴아메리카地域國家를 제외한 대부분의 開發途上國家 平均都市化率보다는 약 2배의 都市化 수준에 달하고 있다. 한편 일찌기 都市化가 시작된 西歐先進國家나 이웃의 日本과 비교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 都市化는 1950年代의 이들 先進國家 平均都市化 수준과 거의 비슷하여, 최근의 急速한 都市化에도 불

구하고 이들 先進國의 都市化程度에 이를 때까지는 약 25~30年間 時間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都市化推移와 速度

都市化는 歐美先進國에서 대체로 産業化와 並行하여 進行되어 왔다. 오늘날 開發途上國家에서는 이들 先進國들에 비해서 産業化뿐 아니라 都市化가 뒤늦게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도 歷史적으로 볼 때 최근까지 典型的인 農耕社會로 國民의 대부분이 農村에 살고 있었으나, 1960年代에 들면서부터 급속한 都市人口成長을 하여 지금까지 都市化가 急速하게 進行되고 있다.

〈表 3〉은 1949年 이후 센서스實施 年度別로 市部人口로 定義한 都市化率과 都市와 農村人口의 센서스期間別 變化率을 나타내고 있다. 全體적으로 1949년에 都市化率이 불과 21%에서 1978년에는 53%로 2.5배로 증가함과 동시에 都市人口成長은 30年間 무려 5배로 늘어났다. 한편 같은 기간 農村人口는 불과 7%밖에 늘지 않았다. 都市人口增加趨勢를 각 센서스期間別로 보면, 1949~55年 기간에 都市人口는 31%로 增加하여 年平均 4.3%인 반면에 農村人口는 같은 기간에 겨우 1% 미만의 輕微한 增加에 그쳤다. 이는 6.25動亂으로 農村으로부터의 避難民과 越南民이 都市로 몰려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解釋될 수 있다.

1955~60年과 1960~66年 期間에는 소위 戰後多出奎期로 거의 每年 3% 수준의 自然增加로 다른 期間에 비하여 都市人口와 農村人口가 다 같이 높은 成長率을 보여주고 있다.

1960年代 後盤期부터는 急速한 産業化와 더

10) 地方自治法 第5條

〈表 3〉 都市人口와 農村人口의 增加趨勢 및 期間別變化率, 1949~78

	市 部 都 市 農 村 人 口 化 率 人 口 (1,000 名) (%) (1,000 名)	期間變化率(%)		
		總人口	都 市 人 口	農 村 人 口
1949	4,039 21.2	—	—	—
1955	5,281 24.5	6.6	30.8	0.7
1960	6,997 28.0	11.4	32.5	10.8
1966	9,805 33.6	21.7	40.1	7.8
1970	12,929 41.1	7.8	31.9	-4.8
1975	16,794 48.4	10.3	29.9	-3.3
1978 ¹⁾	19,380 52.9	5.6	15.4	-3.9
1949~60	— —	18.8	73.2	11.6
1960~78	— —	52.9	177.0	-4.1

註: 1) 經濟企劃院 統計局, 『1978, 常住人口調查報告書』, 1979.

資料: 經濟企劃院 統計局, 『1978, 韓國統計年鑑』, 1979.

〈表 4〉 都市人口, 農村人口 年平均增加率變化, 1949~78

	年平均增加率 (%)			
	總 人 口 (A)	都 市 人 口 (B)	農 村 人 口 (C)	都 農 人 口 增 加 差 率 (B-C)
1949~55	1.02	4.33	0.11	4.22
1955~60	2.88	5.51	1.96	3.55
1960~66	2.71	5.96	1.29	4.67
1966~70	1.90	7.16	-1.16	8.32
1970~75	1.98	5.37	-0.81	6.18
1975~78	1.84	4.89	-1.25	6.14
1955~66	2.81	5.79	1.69	4.10
1966~78	1.92	5.84	-0.97	6.81

資料: 經濟企劃院 統計局, 『1978, 韓國統計年鑑』, 經濟企劃院 統計局, 『1978, 常住人口調查報告書』.

불어 1966~70年 期間에 〈表 4〉에서 볼 수 있듯이 都市人口成長은 무려 7% 수준을 上廻하는 반면에 農村地域에서는 年 2% 이상의 自然增加에도 불구하고 熱病과 같이 번지는 離農向都 현상으로 農村地域에서는 絶對人口數마저 줄어드는 負의 成長을 하여 都農人口增加差率(urban-rural growth difference rate) 年平均 8% 이상으로까지 늘어났다. 이같은 農村

人口의 減少는 비교적 높은 2%線의 自然增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와서, 1966年 이후 10餘年間 당시의 農村人口의 1割을 넘는 200餘萬이나 되는 絶對數가 農村地域에서 減少하였다.

다시 戰後 再建期와 우리나라 産業化의 初期段階라고 할 수 있는 1955~66年間과, 産業化의 高度成長期라고 볼 수 있는 1966~78年으로 兩分해 볼 수 있겠다. 〈表 4〉에서 1955~66年 間에 都市人口는 年平均 6%씩 增加했으며 약 3% 수준의 높은 自然增加로 동시에 農村人口도 年平均 1.7% 成長을 持續했음에도 불구하고 4%線의 都農人口增加差率로 우리나라 都市化率은 계속 增加하여 每年 약 0.8% 都市化해 온 셈이 된다. 한편 우리나라 産業化의 高度成長期에 해당하는 1966~78年 期間에는 前期보다 낮은 2% 미만의 自然增加에도 都市人口는 여전히 약 年 6% 수준으로 都市人口 成長을 했으며, 반면에 農村地域에서는 1966年 이래 약 年 1% 정도로 絶對數가 減少하여 都農人口增加差率은 年平均 7%線으로 全體都市化率은 同期間 每年 1.6%씩 上昇해 온 셈이다.

최근의 우리나라 都市化速度를 〈表 5〉에서와 같이 世界 다른 地域과 比較해 보면 1950~60年 期間에는 全世界 平均都市人口 成長率보다는 높고 開發途上地域의 成長率과 거의 비슷하며, 每年 약 0.62%씩 都市化率이 增加한 셈이다. 그러나 1960年 이래 우리나라 都市人口 成長率은 世界平均의 2배, 開發地域 平均成長率의 3배에 해당하는 높은 都市人口 增加를 해 왔다. 그리고 1960年 이후 우리나라 全體都市化率의 速度는 先進國家의 平均速度보다도 2배, 開發途上地域 平均速度의 무려 3배 이

〈表 5〉 都市人口의 年平均成長率 및 都市化率變化의 國際比較

(단위 : %)

	都市人口의 年平均成長率				年平均 都市化率變化			
	1950~60	1960~70	1970~75	1975~80	1950~60	1960~70	1970~75	1975~80
全 世 界	3.35	2.91	2.84	2.93	0.49	0.36	0.37	0.39
開 發 地 域	2.44	2.05	1.75	1.68	0.62	0.60	0.56	0.53
開發途上地域	4.68	3.94	3.95	4.06	0.51	0.40	0.44	0.50
아 프 리 카	4.42	4.85	4.97	5.10	0.37	0.47	0.56	0.64
라틴아메리카	4.57	4.21	4.01	3.86	0.84	0.78	0.76	0.70
아 세 아	4.57	3.43	3.49	3.65	0.50	0.30	0.36	0.38
韓 國	4.86	6.45	5.37	4.89 ¹⁾	0.62	1.31	1.46	1.50 ¹⁾

註 : 1) 1975~78의 年平均成長率과 都市化變化率.

資料 : U.N., "Patterns of Urban and Rural Growth," 1980, Table 2.2.

상의 速度로 類例가 없을만큼 急速한 都市化를 進行하고 있다. 이같이 加速되는 都市化는 이때까지 大都市 中心의 急速한 産業化에 따라 주로 大都市 人口集中에 의한 것으로 보겠다. 다음 節에서는 都市人口의 地域的 分布 및 都市階層體系에 관하여 考察해 보기로 한다.

Ⅳ. 韓國都市化形態와 都市人口成長 構成要素

1. 地域別 人口分布 및 地域都市化的 推移

앞서 指摘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人口密度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이며, 더

우기 좁은 國土의 약 6割이 居住不可能한 山林地로 全體市部의 總面積은 全國土의 12%로 1978年 현재 總人口의 52%가 市部地域에 몰려서 살게 되어 市部 平均 人口密度는 km²당 약 1,700名에 達하고 있다¹¹⁾. 더우기 서울의 常住人口는 總人口의 21%가 密集하여 있어 km²당 무려 12,500名의 超高密度를 나타내어 都市化에 따라 韓國은 이제 巴야흐로 高密度社會가 되었다. 〈表 6〉은 地域別 人口分布와 道別 都市化率의 變化를 나타내고 있다. 〈表 6〉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都市化推移에 있어서 한가지 특징은 宗主都市(primate city)로서 首都서울의 集中的 成長이다. 1955년에는 서울의 人口는 약 150萬으로 당시 總人口의 7.3%이었으나 1975년에는 거의 20%가 密集되어 있다.

센서스年度別로 道別 人口分布의 變化를 보면 首都圈에 속하는 京畿道와 濟州道를 제외한 다른 모든 地域에서는 總人口에 대한 人口比率이 1955年 이래 계속 낮아져 오고 있다. 특히 全南道와 慶南道에서의 人口分布比率이 가장 많이 減少하였다¹²⁾. 이는 각각 서울과 釜山地方으로 道民들이 계속적으로 大量移出

11) 計算資料 :

內務部, 『1976~77, 韓國都市統計年鑑』.

經濟企劃院 統計局, 『1978, 常住人口調查報告書』.

12) 특히 慶南의 경우는 1963年의 行政改編에 따라 釜山市가 直轄市로 昇格함으로써 慶南道로부터 分離되었기 때문이다.

〈表 6〉 道別人口分布 및 道別都市化率變化, 1955~75

	地域別 人口分布 (%)					地域別 都市化率 (%)				
	1955	1960	1966	1970	1975	1955	1960	1966	1970	1975
서울 特別市	7.3	9.8	13.0	17.6	19.8	—	—	—	—	—
釜山 市	4.9	4.7	4.9	9.0	7.1	—	—	—	—	—
京畿 道	11.0	11.0	10.6	10.7	11.6	17.0	17.9	23.5	27.1	40.8
江原 道	6.9	6.6	6.3	5.9	5.4	8.2	7.9	10.7	11.4	10.3
忠清 北 道	5.5	5.5	5.3	4.7	4.4	3.4	5.9	6.6	6.9	7.4
忠清 南 道	10.3	10.1	10.0	9.1	8.5	9.3	8.3	12.5	14.7	14.9
全羅 北 道	9.9	9.6	8.6	7.7	7.1	11.5	12.5	12.9	13.7	14.4
全羅 南 道	14.5	14.2	13.9	12.7	11.5	20.4	21.9	24.1	26.4	25.7
慶尙 北 道	15.6	15.4	15.3	14.5	14.0	27.6	31.4	36.0	41.5	42.5
慶尙 南 道	12.6	12.1	10.9	9.9	9.4	14.3	15.0	18.0	20.1	25.0
濟州 道	1.3	1.1	1.2	1.2	1.2	2.5	2.5	2.8	3.2	3.3
全 國	100.0	100.0	100.0	100.0	100.0	24.5	28.0	33.6	41.1	48.4

資料: 經濟企劃院 統計局, 『1978, 韓國統計年鑑』, 1979.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現象이라고 하겠다.

또한 같은 〈表 6〉에서 道單位的 地域別 都市化率의 變化를 보면 우리나라의 第3位의 大都市인 大邱를 포함하고 있는 慶北이 다른 道에 비하여 가장 높은 都市化率을 계속 維持해 왔으나 1975年 以後부터는 서울과 釜山에서의

集中的 都市人口成長으로 慶北의 都市化率도 全國都市化率보다 훨씬 낮게 떨어지게 되어 韓國都市化過程에 있어서 1975年 以後 서울과 釜山の 兩大都市 人口增加가 차지하는 比重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全國都市化率의 增加에 따라 다른 道의 都市

〈表 7〉 道別都市人口 및 農村人口變化指數, 1955~75

	道別都市人口 增加指數, 1960=100					道別農村人口 變化指數, 1960=100				
	1955	1960	1966	1970	1975	1955	1960	1966	1970	1975
서울 特別市	64.4	100.0	155.5	225.9	281.7	—	—	—	—	—
釜山 市	90.2	100.0	122.9	161.2	210.9	—	—	—	—	—
京畿 道	(2)81.8	(2)100.0	(3)184.4	(3)148.4	(6)335.0	86.9	100.0	105.4	108.4	105.9
江原 道	(3)89.5	(3)100.0	(4)152.5	(4)174.9	(4)191.3	91.7	100.0	105.7	104.6	101.8
忠清 北 道	(2)50.6	(2)100.0	(2)127.0	(2)143.8	(2)185.3	91.9	100.0	111.3	103.3	101.3
忠清 南 道	(1)75.6	(1)100.0	(2)169.0	(2)214.8	(2)263.5	89.1	100.0	109.5	102.9	102.0
全羅 北 道	(3)79.3	(3)100.0	(3)116.7	(3)133.8	(3)169.3	90.4	100.0	103.4	96.1	91.3
全羅 南 道	(4)80.2	(4)100.0	(4)124.5	(4)147.2	(4)172.9	89.6	100.0	111.9	105.7	99.8
慶尙 北 道	(4)75.6	(4)100.0	(5)129.7	(5)161.0	(5)198.8	90.8	100.0	112.4	106.0	105.3
慶尙 南 道	(5)82.0	(5)100.0	(6)136.2	(6)163.9	(6)245.7	91.4	100.0	100.4	93.8	87.1
濟州 道	(1)88.5	(1)100.0	(1)128.8	(1)156.3	(1)198.8	107.1	100.0	116.9	121.2	129.5
全 國	(27)75.5	(27)100.0	(32)140.1	(32)184.8	(35)240.0	90.3	100.0	107.8	102.9	99.6

註: ()안의 數値는 都市數.

資料: 經濟企劃院 統計局, 『1978, 韓國統計年鑑』, 1979.

內務部, 『1976~77, 韓國都市統計年鑑』, 1978.

化率이 계속 增加해 왔지만, 특히 首都圈에 속하는 京畿道の 地域都市化는 1970~75年間 서울 周邊의 새로운 衛星都市의 追加등으로 每年 거의 4.8%씩 地域都市化率의 增加를 해 왔다. 또한 1970年代에 들면서 韓國第2位의 大都市인 釜山圈域의 影響圈에 속하는 慶南의 地域都市化率로 既存都市인 蔚山, 馬山等 地臨海地域의 工業團地育成으로 年平均 거의 1%씩 地域都市化率이 上昇해 왔다.

<表 7>은 地域別 都市人口 및 農村人口 變化指數로 時期別로 對比한 것이다. 道單位別로 1960년의 都市人口 및 農村人口를 100으로 指數基準化하면 1960~75年間 서울과 釜山의 人口增加는 각각 3배와 2배의 增加를 했다. <表 6>에서 설명했던 것을 <表 7>에서 좀더 부연하면 9個道 가운데 首都圈에 속하는 京畿道の 都市人口增加는 1975年度에는 지난 15年間 3.35배의 都市人口增加를 하였다. 京畿道에서는 특히 1970~75年 기간동안 都市人口의 急増을 가져 왔는데 이는 道內의 既存都市의 人口成長 이외에 1973年度에 서울 周邊의 安養, 富川, 그리고 城南市 昇格에 크게 起因한 것으로 理解할 수 있다. 한편 9個道 가운데 全南과 全北에서는 1955年 이래 새로운 市昇格도 지금까지 없었거니와 他地域의 都市人口成長에 비해 道內 既存都市人口成長이 비교적 低調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道別農村人口의 變化를 보면 都市人口 增加 趨勢와는 반대로 1966년부터 濟州道를 제외한 다른 모든 道の 農村人口數가 계속 減少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農村人口의 減少가 가장 빠른 順으로는 慶南, 忠南, 全南의 順으로 1960年度 農村人口 100에 대해 1975年度에는 87.1, 91.3 그리고 99.8로 農村人口가

減少하고 있다.

2. 都市階層構造上 都市化形態

앞節에서는 韓國都市化 過程에서 道單位의 地域別 人口分布 및 地域都市成長傾向에 대하여 考察했으나, 여기서는 都市規模別 階層構造面에서 都市成長 및 都市化形態를 보기로 하겠다.

<表 8>은 時間別로 都市人口規模別 都市數의 分布와 該當 都市人口比率를 나타내고 있다. 1949년에는 人口 2萬 이상 市·邑을 포함한 集居聚落地域의 數가 都合 62個所로 그 가운데 5萬 이상의 都市數는 18個所뿐이던 것이 1945~55年 期間동안 5萬 이상의 都市數는 25個所로 늘어나서 이 期間동안에 比較的 中小都市 중심으로 都市化가 進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人口 2萬~5萬 사이의 小都市 數는 1949년에 44個所에서 1955년에는 34個所로 줄어 들었다. 이는 6.25動亂과 戰爭復舊期間에 中小都市를 중심으로 하는 人口의 地域再編成에 의한 結果로 解析이 된다. 1955~60年間 戰後多出産傾向으로 인한 높은 自然增加로 5萬 이상의 都市數는 불과 3個로 늘어난 데 비해 2萬~5萬 小都市 規模의 數는 5年間 거의 2배로 增加하여 72個所로 늘어났다. 이 期間은 都市化過程에서 市部人口增加도 있었으나 農村人口增加도 동시에 이루어졌던 時期이다. 1966年 이후 특히 1970~75年間に 5萬 이상의 市·邑地의 數는 39個所에서 50個所로 늘어나서 1960年代에 다소 침체되었던 中小都市가 점차로 都市成長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풀이 된다.

<表 8>에서 人口規模別 都市階層構造上 都

〈表 8〉 都市人口 規模別 變化, 1949~78

가. 都市數의 分析

年度 規模別 (1,000)	1949	1955	1960	1966	1970	1975	1978
1,000+	1	2	2	2	3	3	3
500 ~ 1,000	0	0	1	2	2	3	3
200 ~ 500	3	3	3	3	2	5	7
100 ~ 200	5	4	3	10	12	17	18
75 ~ 100	2	5	8	7	10	3	2
50 ~ 75	7	11	11	10	12	19	19
30 ~ 50	12	9	19	31	26	31	36
20 ~ 30	32	25	53	46	47	60	48
計	62	59	100	111	114	141	136

나. 人口數 分布比率

(단위 : %)

年度 規模別 (1,000)	1949	1955	1960	1966	1970	1975	1978
1,000+	29.01	39.77	39.30	42.48	54.20	52.62	53.51
500 ~ 1,000	—	—	7.36	11.17	7.33	9.45	9.71
200 ~ 500	21.29	15.29	10.30	7.63	4.32	7.08	9.34
100 ~ 200	13.84	8.20	5.18	9.73	10.42	11.12	10.91
75 ~ 100	3.45	6.12	7.45	4.70	5.55	1.37	0.75
50 ~ 75	8.35	10.17	7.39	5.04	4.58	5.58	5.07
30 ~ 50	9.25	5.02	9.20	9.62	6.30	5.65	5.70
20 ~ 30	14.82	15.44	13.83	9.64	7.31	7.14	5.02
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資料 : 經濟企劃院 統計局, 『1978, 韓國統計年鑑』, 1979.

經濟企劃院 統計局, 『1978, 常住人口調查報告書』, 1979.

市人口의 分布比率을 보면, 政府樹立直後 1949년에 서울의 人口는 2萬 이상의 全市·邑部 人口의 30%를 차지했고 20萬~50萬 規模의 中都市와 2萬~3萬의 小邑의 順位로 都市階層上 都市人口가 配分되었으나, 最近의 急速한 都市化 過程에서 大都市에 人口集中을 하게 되어 1970年代부터는 人口 100萬이상의 大都市에 全市·邑部人口의 折半이상이 集中的으로 都市體系가 形成되어 왔다. 따라서 中小都市數의 增加와 自體의 都市成長도 進行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全體都市人口의 配分에서는

中小都市人口의 比重은 계속하여 작아지고 있는 傾向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에서 論述한 것을 다시 整理해 보면 韓國都市化形態의 特徵으로 最近의 急速한 都市人口成長과 都市化 過程은 앞서 지적한 「엘드리지」의 都市化 定義 가운데 한가지 側面인 都市數의 增加나 기존 中小都市間의 均衡的 都市人口成長을 통한 急速한 都市化라기보다는 특히 宗主都市인 서울을 포함한 小數의 大都市 人口集中成長에 의한 都市化形態라고 보겠다. 앞節에서의 地域別 都市化의 特徵과 人

口規模別 都市位階構造上의 특징을 綜合해 보면, 우리나라의 都市體系는 宗主都市 서울을 頂點으로 全體的인 都市化的 求心點이 되어 總人口의 거의 3分の 1을 首都圈에 集中시켜 놓은 결과이며 地域別로는 南端에 釜山의 影響圈內에서 蔚山, 馬山을 포함하는 臨海工業都市帶의 形成과 內陸地方에서는 第三位의 大都市로서 大邱를 중심으로 하는 大邱圈, 光州와 全州를 根幹으로 하는 湖南圈域으로 都市體系가 形成되어 오고 있다.

3. 都市人口成長의 構成要素

都市人口成長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構成要素에 의한다. 첫째, 都市住民들의 出生과 死亡에 의한 自然增加, 둘째, 人口의 地域間 移動결과에 의한 純移入人口(net migration),

세째,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5萬이상의 地域에 대하여 法規定에 따라서 行政區域上「市」로 昇格되는 경우, 끝으로 行政區域調整으로 周邊地域이 編入됨에 따른 既存都市의 擴張 등이다.

먼저 우리나라 都市人口成長의 構成要素分析에 들어가기 전에, UN에서 分析한 世界各地에서의 最近의 都市人口成長의 構成要素의 國際比較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表 9>에 의하면 1960年代에 들어서 20個 先進國에서는 年平均 약 2.5% 增加率로 都市人口成長을 했으며, 都市成長의 構成要素別로 보면 이들 先進國都市住民의 自然增加는 每年 1% 미만으로 增加하고 나머지 1.5%는 純移入人口移動 및 行政區域改編에 의한 社會增加要素로 都市人口成長에 있어서 약 6割에 해당한다. 이들 先進國의 경우와는 달리 都合 29個國의 開發途

<表 9> 都市人口成長率 및 成長構成要素의 國際比較

	세 서 스 기 간	年 平 均 增 加 率			社會增加比率 (%) (4)=(3)/(1)
		都市成長(1)	自然增加(2)	社會增加 (3) ¹⁾	
先進開發國(N=20)	1960~70	0.02473	0.00975	0.01498	58.3
開發途上國(N=29)	1960~70	0.04323	0.02533	0.01972	39.3
아프리카(N=3)					36.9
가나(Ghana)	1960~70	0.04685	0.02697	0.01988	42.4
南阿聯邦	1960~70	0.03423	0.02548	0.00875	25.6
라틴아메리카(N=15)					34.5
브라질	1960~70	0.04708	0.02594	0.02114	44.9
칠레	1960~70	0.02941	0.01842	0.01099	37.4
멕시코	1960~70	0.04904	0.03349	0.01555	31.7
베네수엘라	1961~71	0.04580	0.03307	0.01273	27.8
아세아(N=10)					50.2
방글라데쉬	1961~74	0.06613	0.02948	0.03665	55.4
인도	1961~71	0.03211	0.02173	0.01038	32.3
인도네시아	1961~71	0.03739	0.02405	0.01334	35.7
韓國	1960~70	0.06250	0.02468	0.03782	60.5
시리아	1960~70	0.04869	0.03333	0.01536	31.5
터키	1960~70	0.05552	0.02117	0.03435	61.9

註: 1) 純人口移動과 行政區域改編 및 市編入 포함.

資料: U.N., "Patterns of Urban and Rural Growth," 1980, Table 3. 2.

〈表 10〉 서울 및 市部人口成長의 構成要素, 1960~75

	센서스期間 都市人口增加數 (1,000)		構 成 比 率 (%)			
			市 昇 格	編 入	純 移 入	自然增加
1960~66 ¹⁾	서울	1,358(100.0)	—	11.4	57.7	30.8
	市部	2,798(100.0)	8.0	9.3	40.6	42.1
1966~70 ²⁾	서울	1,731(100.0)	—	—	85.3	14.7
	市部	3,148(100.0)	—	—	73.1	26.9
1970~75 ³⁾	서울	1,354(100.0)	—	1.0	49.7	49.3
	市部	3,841(100.0)	5.0	3.1	48.8	43.1

資料 : 1) Eui Young Yu(1973).
 2) KDI Census Survival Rate 推定.
 3) Tai Hwan Kwon(1978).

上地域에서는 都市人口가 年平均 4.3%씩 成長을 하여 都市人口增加率에 있어서는 先進國의 약 2배나 빠른 速度로 都市成長을 해왔다. 그러나 都市人口成長의 構成要素別로 보면 都市住民들의 自然增加率이 先進國의 總都市成長率보다 높은 年 2.5% 이상의 수준이어서 당시의 社會增加要素에 의한 都市人口成長에 대한 比率은 4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UN 分析의 國際比較에 의하면 韓國의 都市人口는 1960~70年 期間동안 每年 6.25%씩 增加를 하여 대부분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른 都市人口成長을 하였다. 또 같은 기간에 年率 약 2.5%의 都市地域의 自然增加에도 불구하고 주로 純移入人口에 의한 社會增加는 同期間 都市人口成長의 약 60%의 比重을 가지고 있었다.

〈表 10〉은 1960~75年 期間 동안 各 센서스 期間別로 우리나라 市部人口增加 및 서울의 人口成長을 構成要素別로 分析하여 作成하였다. 分析에 여러가지 方法이 있겠으나 資料의 制約과 便宜性에 따라 소위 「센서스生殘率方法」(census survival rate method)에 의하여 센서스期間別로 都市人口增加의 構成要素를 〈表 10〉에 提示하였다. 먼저 1960~66年 期間

동안 市部人口는 약 280萬이 追加로 늘어났는데 이중 1963年度에 실시된 行政區域改編 및 調整으로 5個行政單位(東草, 議政府, 天安, 安東, 蔚山)가 새로이 市로 改編되어 市部人口增加에 약 8% 寄與하였다. 또 당시의 行政區域調整으로 既存市の 區域擴張에 따른 市周邊地域의 市編入에 의해 都市人口成長에 약 9.3% 寄與한 것으로 推算되었다. 이밖에 都市住民의 自然增加와 農村人口의 純移入에 의한 都市人口增加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각각 42%와 41%로 推定되었다. 같은 기간 서울市는 136萬의 人口가 增加되어 全體市部人口增加의 거의 折半에 해당하는데 그 增加構成을 보면 서울市編入에 의한 人口增加가 11.4%, 自然增加는 31%인데 비해 서울에서의 純移入人口에 의한 比率이 58%로 서울市人口增加의 가장 큰 構成要素가 되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1966~70年間은 우리나라 都市化 趨勢에서 가장 急激한 都市人口成長期間으로 4年間에 市部人口는 무려 315萬으로 急增하였다. 이 기간에는 市昇格이나 市編入과 같은 行政區域의 改編調整이 없었으므로 都市人口成長은 自然增加와 純移入人口의 두 가지 要素에 의하여 都市成長이 이루어졌다.

市部人口增加에서 自然增加의 比率이 27%인데 비해 離農向都에 의한 純移入의 相對的 비율은 73%로 당시의 都市人口增加에서 離農人口移動이 主導的 役割을 한, 마치 熱風 같은 民族大移動期라고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서울市の 人口增加는 170萬으로 全都市人口增加의 55%를 차지하여 韓國都市化를 주도해 왔으며 韓國都市의 서울化라고 볼 수 있다. 다시 서울市人口增加의 構成要素를 보면 自然增加가 약 15%이고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150萬의 人口가 他地域으로부터 서울에 純移入하게 된 셈이다.

1970~75年 동안 市部人口增加는 384萬이고 서울市の 增加人口數는 135萬으로 1966~70年 間에 비해서 서울市の 人口增加는 市部人口增加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나 그 增加人口의 絕對數에 있어서 多少間 鈍化되는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成長人口의 構成要素別로 分析해 보면 1973년에 實施된 行政區域調整에 따라 3個의 새로운 市昇格이 있었다. 行政區域改編으로 인한 昇格市의 人口는 同期間市部人口增加의 比率에 있어서 5%이고, 서울을 포함한 其他市地域의 市編入에 의한 것이 3%로 分析된다. 그리고 市部人口의 自然增加의 比率이 43%, 農村人口의 純移入人口의 比率이 거의 50%로 1966~70年 期間동안 離農民의 純移入의 比率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韓國都市化에 있어서 人口移動要素로서 계속 가장 중요한 役割을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市周邊의 市編入에 의한 서울市 增加人口는 1% 정도로 微少하고, 거의 全적으로 自然增加와 純移入人口가 서울市 人口成長에 같은 정도로 寄與하였다. 그러나 이같이 서울에서의 純移入에 의한 比率이 鈍化되었다 하더라도 同期

間중에 行政區域改編에 의한 市昇格地의 所在을 보면 安養, 富川, 城南 3市 모두가 서울周邊開發制限地域(green belt) 밖의 首都圈內의 서울周邊地域의 衛星都市들로서 서울市行政區域의 人口增加는 아니지만 사실상 서울首都圈의 人口增加를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서울의 郊外化를 통한 서울市 人口成長이라고 할 수 있다.

上述한 바를 要約하면, 우리나라의 최근 都市人口成長의 速度는 先進國의 경우나 대부분의 開發途上國보다 높은 都市成長率을 나타낼 뿐 아니라, 이같이 빠른 都市人口成長은 離農에 의한 純移入人口가 1960年 이후 가장 중요한 都市人口成長의 構成要素였다. 그러나 都市人口成長에 있어서 離農에 의한 純移入의 比率이 1960年代에는 都市人口成長의 主導的 役割을 했었으나, 1970年代에 들면서 相對的으로 多少 鈍化되는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都市化特徵으로 都市人口成長은 宗主都市인 서울의 人口集中이었으나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大都市自體보다는 大都市 周邊의 衛星都市의 生成 및 育成으로 大都市人口의 郊外化(suburbanization) 혹은 大都市圈化(megalopolitanization)가 1970年代부터 形成되는 것이 또 다른 特徵이라고 보겠다.

V. 要約 및 結論

이때까지 論述한 바를 要約 整理하면, 今世紀에 들면서 우리나라는 激甚한 社會·經濟·政治體制의 變動을 겪었으며 同時に 相應하는 人口變動이 있었다. 歷史的으로 우리나라의

人口變動은 人口動態의 構造(population dynamics) 밖의 政治·社會構造의 外部要因의 작용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아 왔다. 人口變動의 하나의 側面으로서 人口의 地域分布 및 人口의 地域移動으로 인한 都市人口增加와 都市化가 최근 우리나라의 當面人口問題 중의 가장 深刻한 爭點의 하나가 되었다.

韓國의 최근 都市人口趨勢와 都市化過程에서 다른 나라와의 國際比較에 있어서도 類例를 찾아 볼 수 없이 빠른 速度로 進行되고 있다. 이같이 急速한 都市化는 과거 20年 동안 都市爲主의 加速的인 産業化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急速한 都市化는 近代産業社會의 당연한 결과이며 屬性인 동시에 또한 都市化는 産業化를 促進시킬 수 있는 必要條件이 되기도 한다. 이같은 의미에서 産業化의 促進을 통한 經濟發展과 좁은 國土내에서의 장래 예측되는 總人口增加의 人口壓力의 解決을 위해서도 都市化는 불가피할 뿐 아니라 어느 의미에서는 더욱 促進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考察하였듯이 最近韓國의 都市化는 小數의 大都市人口集中으로 都市體系上 跛行的 都市成長과 都市化 形態에 있어서 小數의 大都市에 極度の 人口集中이 오늘날 우리나라 都市化의 問題點이다. 특히 首都 서울의 極度の 宗主都市化로 인한 國土利用이나 地域開發側面에서도 地域不均衡을 招來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 및 小數의 大都市地域에서는 慢性的 人口過密問題로 인한 各種의 過剩

都市化(over-urbanization) 問題는 이미 社會問題의 爭點이 된 지 오래다. 이밖에도 首都 서울의 地政學的인 條件으로 서울人口의 계속적인 증가는 首都防衛의 脆弱性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國家安保에까지 關聯되는 문제가 되었다.

오늘날 韓國의 急速한 都市化는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가 提起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最近 都市人口急增의 가장 중요한 要素는 持續的이고 大規模의 離農向都人口에 의한 純都市移入人口로 밝혀졌다. 이같은 人口移動과 離農現象은 그 移動方向과 移動量뿐 아니라 移動人口의 社會·人口學的 特性에 따라 都市는 물론 轉出地인 農村에 다 같이 深刻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本稿에서는 最近 韓國의 都市化 過程에서 그 趨勢와 速度, 地域的 그리고 都市階層構造上的 都市化形態에 관하여 考察하고 都市人口成長要素의 概括的 分析을 시도했을 뿐이다.

이상에서 提起된 都市化에 관한 문제, 특히 大都市人口集中에 대한 人口再配置政策의 效率的 施策講究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人口移動에 대한 時系列的 體系的인 研究가 要望된다. 이같은 人口移動에 관한 研究는 人口移動의 方向(migration stream)과 移動量(volume) 그리고 移動人口의 人口·社會學的 特性을 철저히 把握함과 同時에 移動의 動機 및 大都市人口集中의 構造的 決定要因을 分析해야 되겠다.

▷ 参 考 文 献 ◁

- 金哲, 『韓國の人口と經濟』, 東京, 1965.
- 朴在一, 『在日朝鮮人口關する総合調査研究』, 東京, 1957.
- 李相佰, 「近世前期篇」, 『韓國史』, 震檀學會, 1963.
- 經濟企劃院 統計局, 『韓國統計年鑑』, 1976, 1977, 1978.
- 經濟企劃院 統計局, 『1978, 常住人口調査報告書』, 1979.
- 內務部, 『韓國都市統計年鑑』, 1978.
- Cho, Lee-Jay, *Demographic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1973.
- Davis, Kingsley, *World Urbanization 1950 ~1970*, Univ. of California Press, 1969.
- Eldridge, Hope Tisdale, "The Process of Urbanization," *Social Forces*, 1942, 20 (3) : 311~316.
- Goldstein, Sidney and David Sly (ed.), *Patterns of Urbanization: Comparative Country Studies*, IUSSP, 1975.
- Hong, Sawon(ed.), *Population Status Report*, KDI, 1978.
- Kwon, Tai Hwan, *Demography of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77.
- Todaro, Michael P., *Urbanization in Developing Nations: Trends, Prospects, and Policies*, Population Council, November 1979.
- U.N., *Statistical Yearbook*, 1977.
- U.N., *Demographic Yearbook*, 1977.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79.